

제28회 법무사 시험 헌법과목 총평

1. 쟁점과 지문의 구성

출제된 쟁점을 분석해 보면, 헌법총론에서 4문제가 출제되었고(헌법개정, 국적, 헌법전문, 소급입법금지), 기본권론에서는 총8문제가 출제되었으며(평등권, 통신의 자유, 재산권, 직업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통치구조에서도 8문제가 출제되었다(공무원제도, 정당제도, 국회의 입법권, 탄핵소추,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감사원, 헌법소원심판)

지문은 총 100개가 출제되었는데, 판례지문은 69개, 조문지문은 30개, 헌정사지문 1개로 구성되었다.

2. 총평

열핏 보면, 쟁점과 지문의 구성 자체는 평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출제될 만한 곳에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인사청문회법이나 헌법조문의 구체적 내용을 물었다는 점, 최신판례의 내용을 정답지문으로 구성했다는 점, 법무사 관련 판례를 하나의 문제로 구성하였다는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다소 높았다고 보여진다.

3. 내년 시험대비

정답 지문을 살펴보면, 많은 것들이 강의시간에 준비하고 연습했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번 시험이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정답 외의 지문들이 생소했기 때문인데, 이는 이미 다수의 헌법시험에서 드러난 경향이다.

주의할 것은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헌법 공부의 범위를 늘이기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법무사시험에서 헌법이 가지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정리하는 내용을 더욱 확실하고 선명하게 하는 방식이 좋다. 우리가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서 모든 지문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무사 수험생들은 헌법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기 보다는 헌법 수업시간만으로 집중해서 끝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